

2002. 2. 14.

발신: 14대 총여학생회 반성폭력팀

수신: 연석회의에 오신 여러분

이과대 (강력주)
 공대
 상대
 사회대
 모반

제 4차 새터 반성폭력 실무주체 연석 회의

생과대 X. 발대연락두질. 윤대 이경

1. 보고안건

1) 내규 기획단/소책자 진행 상황, 각 단대 단운위 교양, 중운위에 안티마초맨 제안

2) 단대별 보고/교양 진행 상황

공대 - 실연회 등. 원용되지 않은 일들. 과반학생회교양 실시 (5개 과반정도), 과반자료집에 관련글 수록 제안 들음
 단위모니터링팀은 힘든 상태. 여학생으로 모의사람들 중심으로 준비함. (새터, 여학생 등.)

2. 논의 안건

1) 포스터 제작 수량과 내용 결정

사회대 (19+X) 공대 (80+X) 이과대 (20+X) 상대 (80+X)

2) 각 단위별 교양 평가

3) 단위별 내규 시행 아이템 논의

공대 - 소책자 부가는 아쉽. 장형상에 신고필요를 ~~확인~~ (이렇게 필요?) 신고함
 사회대 - 신고함

4) 소책자 내용 검토

5) 단위별 내규 시행 과정 최종 점검

사회대: 영상물 상영. 구두로 배 → 교양주체는 7/학대에서 하는 거 중음들.
 상대: OT 자료집에 글을 실었으면.

3. 공지 사항

다음 주에 소책자, 포스터, 영상물이 나옵니다. 특히 영상물과 소책자는 오티 기간에 꼭 가져가서

함께 알리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포스터는 새터 가기 전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

⇒ 2/21에 ★

첨부자료 1. 안티 마초맨 중운위 제안서

8. 과반학생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음
 교양도 못함...

단위위보다
 효과 ↑

※ 새터내주포스터
 - 관문 + 신고필요 + 삽화

2-2) 사회대: '에'에서 새터내주포스터의 예를 빼달라는 ~~한글~~ 요청. ~ 평가기후 내규보강.
 실제적인 상황까지 집중적 개념을 어떻게 줄어? 어떻게 실행해야 하나?

공대: 정형의 차이로 인한 이해도의 차이 → 내규의 upgrade 필요한지
 새터때만 -b. 단 순화시켜서 받아들이는 상황. 민장도 {어코로임에서는 과외 ↑}

상대: 상운위 분위기의 문제. 개안으로 풀려야 하는 상황 (2반, ? 피로교양 부족)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뭔가요?

②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참여하게 되는 행사는 아마도 오리엔테이션과 새터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리를 통해 새로운 선배들, 동기들과 만나 친해지고 대학생활의 면면들을 익히게 되죠. 한마디로 새터와 오티는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첫인상의 자리'이며 4년 간의 대학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좋은 의미에도 불구하고 새터 기간 역시 많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공동체 문화 속에서 성폭력적인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폭력은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유형으로 행해지는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동의 없는 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말이나 행동 어떤 방식으로든 한 사람에게 성적인 측면에서의 불쾌감이나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경우를 성폭력이라고 하는거죠. 우리 사회에서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성폭행 등의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건의 경중과 심각도를 나누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소해보이는 말 한마디로도 피해자는 얼마든지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기존의 구분들이 피해자의 느낌과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절적으로 행해져 왔죠.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단어의 사용에는 피해자의 경험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하는 노력이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폭력은 새터 기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합니다. 새터에서는 선배들, 동기들과 친해지기 위해 재미있는 게임들을 하기도 하고 촌극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함께 술을 마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때 단순히 '재미있고 즐겁게' 또는 '친해지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알게 모르게 많은 성폭력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한 성을 불편하게 만드는 놀이나 농담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촌극 속에 여성 비하적인 내용이 담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된 것이고 내가 불편하고 기분 나쁨에도 불구하고 '괜히 내가 과민 반응하는 것은 아닐까', '선배나 동기와 관계가 서먹해지면 어쩌나' 하는 이유들 때문에 이를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이러한 불편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한사람이라도 누군가가 불편하다고 문제를 제기 했을 때 모두가 함께 얘기해서 고쳐나갈 수 있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대수롭지 않게 넘겨왔던 성폭력에 대해 그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준비된 학생사회의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새터 반성폭력 내규가 존재함으로써 새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해 새터 참여자들이 좀더 민감해질 수 있고 경각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 무심코 행해질 수 있는 새터에서의 성폭력을 어느 정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새터 문화를 조금씩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보다 폭넓게 공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터가 새내기들이 대학생활의 시작을 여는 문이듯이 새터 반성폭력 내규는 연세에서 성폭력의 뿌리를 뽑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새터 내규를 자율적으로 지켜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보다 하나의 규제 혹은 제재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의미가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 경우죠. 따라서 그 필요성에 대한 광범위한 인식을 다같이 공유하며 새터 내규를 자발적으로 지키고 시행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즐거운 새터를 진정 원한다면 모두가 편안하게 어울릴 수 있는 문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일테니까요.

☞ 새터 내규 자료집 → '새터내규가 뭐냐' 간단한 설명
☞ 관악생회 자료집 → 새내기들이기 해주실만한 것.

① * 엇, 새터내규? 이게 도대체 뭐예요?

새내기와 선배들이 처음으로 여러시간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 새터...

새내기에게는 많은 것들이 새로운 경험으로 다가올 것이고, 그 중 방문에 혹은 벽에 붙은 '새터내규'에 대해서는 더욱이나 궁금증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새터내규'에 대하여 새내기에게는 궁금증을 해소해 주고, 나아가서 새내기과 선배가 함께 '새터내규'에 대해 진지하게 바라보고 그것의 진짜 의미를 실현할 수 있기를..하는 바람으로 한 가지 상황을 그려보고자 한다.

그럼 한 번 들어가볼까?

새내기: 새터내규...? --a 선배님! 도대체 이 새터내규라는게 뭐예요? 이게 여기 왜 붙어있는 거죠?

선배: 아~ 새터내규? 그건 말이죠. 새터기간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놓은 규약이에요.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지켜라!"해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새터 중의 성폭력에 대해 고민하고 그것을 방지해 보기 위해 스스로 정한 자.치.규약이라는 데도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새내기: 새터 중 성폭력이라구요? 티비에서나 나오는 무시무시한 성폭력이 지금 이곳에서두 일어날 수 있다구요? 말두 안돼...

선배들 별루 안 무서워 보이는데...--;

선배: 성폭력이라는 것은 꼭 강간과 같은 신체적인 폭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언어적인 폭력, 그리고 환경적인 폭력 등 우리가 3일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곳곳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이죠. 중요한 것은 한 성(性)이 다른 한 성(性)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불편해 하는 그 한 성이 그것을 폭력적으로 느낄 때 그건 성폭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내기: 그럼 이 규약에 맞게만 행동해야 하는 건가요? 거기면 처벌이라도 받나요? 좀 신경쓰일 거 같은데...--;

선배: 물론 이걸 주욱 읽어보았을 때는 신경쓰이고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새터라는 곳은 분명 나 혼자 생활하는 곳이 아닌, 처음 만난 학교 선후배가 함께 생활하는 곳이잖아요. 타인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언제나 '존중과 배려'를 필요로 하죠. 안 그래요?

새내기: 그렇죠...

선배: 이 '새터내규'도 어쩌면 그러한 '존중과 배려'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남성 때문에 여성이, 그리고 여성 때문에 남성이 불편해하고 피해를 입는다면, 근본적으로 따져 보았을 때 그건 타인에 대한 배려의 부족 때문이지 않을까요.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덕목인 '존중과 배려'조차 결여되어 왔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성폭력들이 발생해 왔고 결국 '새터내규'라는 것까지 제정하게 된 것이구요. 그러니 이 규약을 지키는 것을 신경쓰인다고 생각할 게 뭐 있겠어요? 가장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을 지키는 것일 뿐인데...

새내기: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선배님 말을 듣다 보니, 결국 모두가 즐거운 새터를 만드느냐, 누군가 불편해하는 새터를 만드느냐 하는 것은 제가, 또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 한 번 지내봐야겠어요. 그래서 뭔가 불편하고 누군가 피해를 입고 있다 생각될 땐 서슴없이 얘기할래요. 그래도 되는 거죠?

* 지선과 선배

선배: 물론이죠. 가까운 선배에게 얘기해도 좋고, 학생회에 찾아가서 얘기해도 좋고, 밖에 있는 신고함에 넣어도 좋아요.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드러내어 풀어나갈 때 길은 언제나 더 나은 방향으로 열리게 마련이지요.^^

새내기: 그래요! 우리 한 번 모두가 즐거운 새터를 만들어봐요!^^

③ 후배는 어떻게? 선배는 이렇게!!

1) 피해자는! → 개인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은 어떻게 대응하면 될지? 문화적인 성폭력에 대처하는.

1. 성폭력적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문제를 제기하거나 자신의 불편함을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여, 그 상황에서의 일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2. 피해 이후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사람일뿐, 성폭력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3. 피해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이 되면, 주변 사람과 상의하거나 정해진 기관에 신고를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 특히 선배들은 여러분을 잘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4. 위급한 상황일 경우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씻지 말고 바로 병원을 가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우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도움을 안정시키세요.

2) 주변사람들, 특히 선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 성폭력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되는 성폭력적 문화들은 끊임없이 학생들에게 대한 이야기.

1. 주변에서는 용기 있게 말을 한 경우 맞장구를 쳐줍니다. 그리고 불편한 기색이 보인다면 선배가 먼저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사건이 신고되면 무엇보다도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피해자를 신중하다는 느낌을 주고, 피해자를 믿고 함께 해결할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3. 피해자에게 성폭력이 절대 피해자의 탓이 아님을 알려주세요.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대면하기 힘들어하는 경우에 되도록이면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4. 최대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경험을 이해하며 들어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피해자가 상처를 극복하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사건 해결 방법의 가능한 선택들을 이야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새내기의 경우 성폭력을 당한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새터 내규가 있음을 인지시키고, 학생회 등에 빠른 시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해자 당사자는 아니므로 피해자의 상황을 공감하는 제3자가 과(반)학생회, 단대학생회, 총여학생회 등이 사건이나 전화, 직접 방문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걸 알려줄 수 있겠지요?

피해자가
영향을 받지 않아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대응해야.
(집단적인
성폭력 대처)

④ 이런 놀이 다시 생각해봐요!

FM- FM의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군대의 신고식과 흡사하게 큰 목소리로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FM은 별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몇 번이고, 몇 학번이고, 이름이 무엇인가 뿐이지요. 소개의 룰이 정해져 있어서 그 것을 어길 경우 끝없이 다시 해야 합니다.

얼마든지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텐데, 오히려 온갖 인상을 쓰면서 크다 못해 찢어지고 갈라지는 목소리를 내면서 자신을 소개하는 없겠지요?

'망가지는 모습'이 재미있다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는데요. 망가지는 맹목적인 이유 하나

이해하는 (이해하는) 여학우에게 주는 조언들

로 FM을 하고 싶어하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을 배제해서 소외시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마초맨- 우리 학교의 대표적인 놀이 문화 중에 하나가 응원이지요. 하지만 모두가 즐겁게 즐기기에 문제가 많은 응원곡이 있지요. 그 대표적인 것이 '마초맨'이에요. 마초의 뜻은 알다시피 원뜻은 '남자다운 남자'이지요. 여기서 남자다운이란 성적 능력이 뛰어난 남자를 일컫는 것이지요. 우리말로 하면 번강쇠(?)와 같은 뜻이겠죠. 또한 마초는 남성우월주의자로 많이 쓰이고 있지요.

또한 마초맨 응원 중간에 들어가는 몸짓은 피스톨 운동을 표현하고 있구요. '어머... 마초맨이 이런 뜻인지 몰랐어!'라고 말만하면서 계속 모욕을 부르지 말고 의식 있는 대학생이 됩시다~

*아카라카
새시바진

*가장이어
레한
이아리

- ⑤ 연세 대학교에 입학하면 우선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들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원시림에서 신촌주방장과 함께 아카라카를 외치고 '뛰노는' 것을 연세대학교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 같고 즐기지 못하면 웬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만 같아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다행히(?) 그것이 재미있어지기도 한다. 그렇지만 굳이 새터를 억지로 즐기려는 것은 없는 것이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하다면 적당한 놀이문화는 재미있게 새터를 즐기면 되는 것이다.

처음보는 동기들과 어색하게 부대끼며 한 방에 들어앉았을 때의 그 어색함, 어색함을 견디지 못하는 누군가 자기 소개를 시작하고 마땅히 시간 때울 일도 없던 그 방에 친구가 있는 방을 찾아 하나 둘 나가버리기도 합니다. 참 상상력이 부족한 한국 문화의 현실이겠지요.. 이런 놀이 하면서 서로 친해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합니까? (놀이방)

마치 수건돌리기를 하듯이 둥글게 앉아 가위바위보를 하면, 한쪽은 싸움을 해서든 술래를 한명 정합니다. 술래는 가운데에 우두커니 서있으면 안됩니다. 그 동안 모여앉은 친구들 앞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 중 한명에게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합니까?"고 묻습니다. 그 친구가 "아니오"라고 대답하면 "네"라고 대답하는 친구가 있을 때까지 "당신의 이웃을 사랑하는 친구"를 찾아다녀야겠지요. 모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면 참으로 원한이 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니.. ^^; "네"라고 대답한 맘 좋은 친구를 찾았다면 술래는 그 친구에게 "어떤 이웃을 사랑하십니까?"라고 묻습니다. 친구는 '어떤 이웃'을 사랑하는지를 말하면 됩니다. 그 친구가 안경쓴 이웃을 사랑한다고 칩시다. "안경쓴 이웃을 사랑합니까?"고 묻는 것이 끝나면 안경쓴 사람들은 모두 일어나서 자기가 앉아있던 위치가 아닌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이때 빈자리에 술래도 함께 끼어 앉아야 합니다. 결국 안경쓴 사람 중 한명이 가만히 있으면 술래에게 빼앗겨 앉지 못하게 되겠지요. 가끔씩 술래가 또 자기 자리를 못찾기도 합니다. 찾지 못한 사람은 다시 이웃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하며 돌아다녀야 하죠. 이 놀이에서 무거운 사람은 술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들 친구가 '어떤 이웃'을 사랑하느냐를 물어보고 제 자리를 찾아 앉아야 하니까요. 우습게 볼 놀이가 아닙니다. 몸을 잡싸고 돌아다니면 추위 잊게 되거든요. 검은 양말의 이웃, 노란 머리의 이웃, 반지를 낀 이웃... 모두 사랑합니다~ ^^

⑥ 조금의 설명이 필요할듯. 새내기들이 보기에는 어려울 내용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 때도 알았더라면... 그랬다면 인생이 100% 다를 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덜 방황하고 덜 힘들어하고 그리고.. 좀 더 쉽게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삶이란 언제나 눈에도 인식 못할 아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큰 차이를 불러오기도 하기에 이제 막 첫걸음을 떼는 새내기들에게 꼭 기억해야 하는 훈계가 아니라 그저 조금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소탈한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다 좀 더 당당하고 멋지게 살아가길 바라면서...

1. 처음 만나서 아카라카와 원시림을 가르쳐 준 선배들과 술을 마시거나 이야기하기 보다는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보라.

② 계속되는 환영회 자리에 여자선배가 왜 많이 보이지 않는지 생각해 보라.

→ 그 이유는? 이해하기 어려울수도...

9 여학우 한미는 친구만

9 여학우들을 위한 소개. 여학우들의 마음을 늘리기 위한 이야기들

→ 생명의
마음

3. 오티 기간, 남자선배들이 멋있어 보이더라도 조금 더 지켜보고 한 달 후에도 과연 그
공작지가 남아있는지.

4. 환영회와 오리엔테이션, 새터에서 오버가 빠지면 썰렁하다. 오버가 빠지면 우리는 좀 더 많
은 여자선배들을 볼 수 있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5. 새터에서 개강파티로, 대동제와 연고제로 이어지는 오버는 이 대학문화의 전부가 아님
을 1학년이 끝나고 나서야 알게되지 않기를...

6. 학년이 높아지면 당연하게 사라지는 여선배의 모습, 그 한에 남는 예외일거라는 착각은
버리길. 자신을 이 문화 속에 그대로 놓아두면 그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길이다.

7.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답답한 것들이 있다면 주저 말고 이야기해. 그 답답함이 쌓여 나중
에는 과방에서 나를 볼 수 없게 만든다.

8. 특히나 여성이라면, 학기초 남자선배들 사이에 둘러쌓여 이 보다는 마음이 맞는 동
기들과 시간을 보내고, 여자 선배들과 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것. 꽃은 언젠가는 시들게
되는 존재이다.

9. 새터에서 언제나 주인공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놀아. 한 상대를 배려하면서.

10. 보이지 않는 여자선배들이 지금은 별로 신경쓰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녀들의 존재
감이 얼마나 큰지, 그녀들과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아카라카가 신촌
을 뒤흔드는 그 시간,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떠는 여선배들이 있고 술마시는 것만이 노
는 것인줄 아는 우리들 뒤 편에, 자신들이 가장 즐거울 수 있는 방법으로 노는 이들이 있다.
그 숨어있는 1인치를 찾는다면 당신의 대학생활은 즐거울 것이다.